

##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는 것, 참으로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에는 우리 가정에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여 지길 소원합니다.

### 1.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인 장 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으로부터 죽음 사이에는 언제나 선택이 존재한다.” 맞는 말입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일들에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이며, 또한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가?’ 라는 것입니다.

### 2.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의 말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마쳐갈 즈음이었습니다. 광야의 삶을 마치고, 정착하여 안정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왜 하필 오늘 택하라고 선택을 종용할까요? 우리는 과거를 바꿀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과거 선택의 결과가 오늘이듯이, 오늘 선택의 결과가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 3. 오늘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운데에서 머뭇거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번 한 번만 날 도와주면 될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토착신이 우리에게 안녕과 평안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없어질 헛헛한 것. 영원하지 않고, 유일하지 않은 다른 것에 마음을 쏟는 일은 과거로 멈추고, 오늘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바꿉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 선택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한 선택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인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시작합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2024

설 명절 가정 예배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한  
설날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계 1:3]





## 설 명절 가정 예배

묵상기도

다 같이

너희는 여호와와 선하심을 맞보아 알지여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34:8).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다 같이

1.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 합시다
2.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끄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3.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기 도

말 은 이

사랑하는 하나님!  
새해, 설날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여호수아 24:15

말 은 이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설 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 도 자

\* 뒷면에 참고할 설교문이 있습니다.

기 도

인 도 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새해에는 우리 가정이 올바른 목적지를 향해 걸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품 안에서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각자 맡은 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존귀한 이름이 만민에게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 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